

전문기자와 시민기자 블로그 콘텐츠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감시견과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김민하** · 신윤경***

이 연구는 사회 감시견과 상호작용성의 차원에서 살펴 본 기자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성이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의 감시견은 블로그 콘텐츠의 연성화 정도와 내용에 반영된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상호작용성은 댓글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대상은 대표적인 시민기자 신문인 <오마이뉴스>와 이와 유사한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한겨레>의 전문기자 블로그다. 분석 결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블로그의 게시물이 <한겨레> 전문기자 블로그 게시물 보다 연성뉴스를 더 많이 다루고 있었으나 정부와 상호 비판적인 견제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 시민기자 블로그와 전문기자 블로그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사회 감시견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분석하여 파악한 상호작용성은, 댓글의 단순한 상호작용은 <오마이뉴스>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소통적 상호작용은 <한겨레>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기자 블로그, 온라인 저널리즘, 시민기자, 감시견, 상호작용성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블로그는 1인 미디어라고 불리는 만큼 상당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성격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전체 블로그가 공유하는 동질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블로그의 운영주체가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널리즘 구현의 주체인 기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이기에 그 기능이나 특징 면에 있어서 저널리즘적인 색채가 짙게 묻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언론사의 경우 전사적인 차원에서 기자 블로그를 장려하여 정규기사를 통한 보도 행위에 제한 짓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수용자들과 소통하게 함으로써 저널리즘 구현의 또 다른 보루로 기자 블로그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자 블로그가 언론사들이 정규 기사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특성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온라인 저널리즘이 발전하면서 전문 기자에 의해 기사가 작성되고 편집되는 오프라인 신문과 달리 시민 기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신문의 경우 다양한 관점의 보도가 가능해졌다.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독자들은 단순히 기사를 읽는 데에 그치지 않고 뉴스를 생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활동은 이러한 적극적 참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 기자와 시민 기자는 관점의 차이 뿐 아니라 조직적 특성에서도 차별성이 나타난다. 블로그라는 공통적인 매체에서도

* 이 논문은 제2저자가 2009년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차용하였습니다. 저자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를 정했음을 명시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교신저자(minha.kim@skku.edu)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rosa0406@skku.edu)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콘텐츠의 특성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언론사 조직 내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전문 기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뉴스를 생산하는 시민 기자의 차이점은 개인적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블로그에서도 각각의 고유성과 전문성으로 다르게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널리즘적 특성 중 감시견(watchdog) 기능과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주목하여 온라인 언론사와 오프라인 언론사의 기자 블로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기자 블로그는 기자 자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게이트 키퍼와 경직된 조직 문화, 정형화된 뉴스 생산의 틀 등으로 인해 정규 기사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조직적 정체성으로 인해 제약받았던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적 시각이 어느 공간보다도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다. 이러한 블로그 저널리즘의 비판적 기능으로 기자 블로그는 대안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정부와 권력층에 대한 감시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블로그 저널리즘은 과거에 통제된 언론 시스템과 수직적인 정보전달 체계, 언론의 정보에 대한 맹신 등으로 인해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비판 기능이 여론을 선도하는 기자들의 관점을 다원화하고 여론지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가능하게 한 상호작용성이라는 특성은 공론장의 형태가 사이버 공론장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 중요한 특성이다. 기자 블로그에서 이용자들 간의 의견 교환은 댓글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자 블로그에 달린 댓글의 분석을 통해 기자 블로그에서 상호작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저널리즘적 특성을 전문 기자와 시민 기자의 블로그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온라인 상에서 시민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로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기존의 오프라인 인쇄 신문을 발간함과 동시에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결합시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언론사는 조직적 특성과 뉴스 생산의 주체가 각각 시민기자와 전문기자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기자 블로그의 콘텐츠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두 언론사의 기자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저널리즘적 특성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를 감시견과 상호작용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저널리즘으로서 블로그의 이용

블로그는 주로 9.11 테러나 쓰나미 참사와 같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게이트키퍼가 이루어 지지 않은 뉴스들을 공개하기도 하고 기존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라크 전쟁과 같은 사건의 이면을 뉴스로 제공하면서 ‘뉴스 게릴라’로 일컬어지며 새로운 저널리즘으로 주목받게 되었다(김지수, 2004). 따라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는 블로그의 의제설정기능이나 공론장 역할, 또는 블로그에서의 뉴스 보도와 같이 저널리즘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lood, 2003; Gilmor, 2003; Lasica, 2003; Lowrey, 2006; Matheson, 2004). 사적인 공간이며 1인 미디어인 블로그가

저널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블로그가 편리하게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상업적 미디어가 아닌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상업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성을 통해 나타난다. 블로그 이용자들은 오프라인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를 접하기보다 먼저 블로그를 통해 뉴스를 읽기도 하고, 블로거 개인이 수집한 뉴스가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얻기도 한다(한선, 2006). 때로는 기성 언론인들이 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블로그 사이트에서 보도 사진을 입수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김주윤, 2005). 예를 들어 BBC에서 콜롬비아호 참사 당시 관련 사진을 입수하기 위하여 블로그 사이트에 요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국내의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 당시 객차 안의 승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또한 블로그에서 입수된 것이다. 이렇듯 블로그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실성과 현장성을 확보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이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동원한 수천 건 이상의 댓글들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는 기존 언론이 간과할 수 있는 풀뿌리 저널리즘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지정용, 2005).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기능은 이용자들의 블로그 이용 동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블로그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TV나 신문에서 보도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동기요인이 이용자들이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기능을 인식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노일·남은하, 2008).

2) 시민저널리즘과 시민기자

전통적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는 전문 기자들이 생산하는 산물이었다. 뉴스는 각 언론사에서 틀지어지는 보도 프레임을 따라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뉴스는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혹은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매체가 온라인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성 언론에서 뉴스 생산을 담당하였던 전문 기자는 엘리트 중심의 언론사 조직 내에서 교육을 받고 객관주의 원칙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실(fact)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이후 철저한 게이트키퍼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기사가 된다. 따라서 뉴스의 의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상의하달식 의제설정이 되었으며, 사회 지배층, 국가 권력이나 언론사와 같은 주류의 목소리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김병철·최영, 2004). 이러한 기존 저널리즘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찰자적 입장을 고수하려 할 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김민하, 2008).

이에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나 공공정책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실 위주의 객관 보도에서는 다루기 힘들었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인 시민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시민 기자의 활동은 전문 기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뉴스 생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 시민이 뉴스를 생산하는 시민 기자로 활동하며 시민의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의제를 뉴스화 시키며, 시민의 입장과 견해를 대변해 줄 수 있어 기존 언론에서 소외되어질 수 있었던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시민저널리즘이 가지는 특징은 기존 저널리즘에 비해 불균형적이거나

비대칭적인 관점이 존재하는 탈객관적인 보도 방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실(fact)만을 전달하는 주류 언론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보다 생활밀착형의 접근방식을 보여준다.¹⁾ 이러한 시민 저널리즘은 온라인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더욱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정형화된 보도패턴에서 벗어난 온라인 시민저널리즘 매체에서 보도되는 뉴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개방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매우 능동적으로 이러한 뉴스를 활용 한다(윤영철, 2001).

언론사 블로거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전문 기자와 시민 기자의 차이점은 직업기자는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취재하며 언론사의 조직적 방침의 영향으로 기계적으로 뉴스를 생산한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기자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취재 현장의 접근성과 취재원과의 인터뷰를 시민 기자에 비해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시민기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이야기들, 전문기자들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틈새 이슈를 기사화 시키며, 자유롭고 독창적인 뉴스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긴다(김경희·윤영민, 2008).

현재 온라인 언론사에서 시민기자의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사로는 <오마이뉴스>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0년에 창간한 ‘오마이뉴스’는 뉴스의 생산 주체를 파괴한 대표적인 언론사라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매년 <시사저널>에서 실시하는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 대한 조사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6위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 2003, 2004, 2005). <오마이뉴스>에서 뉴스 생산방식은 전문기자들과 시민기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시민기자에 비해 소수 정예인 전문 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국제 분야를 중심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지역팀의 전문 기자는 전국 각지의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보도한다. 그리고 시민 기자는 기자회원으로 등록을 하여 자격을 얻으며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김은규, 2005). 편집을 담당하는 전문 기자들은 시민기자의 기사를 검토하고 메인면의 배치를 담당하며, 주요이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기사기획 및 청탁을 진행하고 시민기자 조직화와 교육 및 각종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기자로만 구성되어있는 기존 언론사인 <한겨레>와 시민 기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기자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기자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성

(1) 사회의 감시견

언론의 감시견(watchdog) 기능은 언론이 정부와 사회의 권력기관에 대해 부조리한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언론의 기능이다(김동률, 2009; 유재천·이민웅, 1994; Paula et al., 2006). 언론학에서 언론의 규범적인 역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개의 메타포’ 중 하나인 감시견

1) 이 논문에서는 시민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을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civic journalism)과 구분한다. 후자의 경우, 저널리즘 행위의 주체가 여전히 전문기자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대상인 시민기자와 구분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기로 한다. 공공저널리즘의 핵심은 공공 문제의 해결책과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언론인들이 지역공동체에 시민참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공청회나 시민포럼과 같은 형태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공 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위로의 하의상달식 의제설정능을 가능하게 한다(김민하, 2008; 김홍규·황은중, 2008; 양민제·김민하, 2009).

이라는 개념은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동의에 기반 하여 언론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양승목, 2006).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저널리즘의 감시견 기능은 언론이 존재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매체에서 일어나던 커뮤니케이션 보다 훨씬 더 많아진 커뮤니케이션 매체 속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나 정부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Blasi, 1977). 오래전 민주주의 사회와 독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언론이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이었으나,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언론은 점차 상업화 되었고 이에 따라 언론의 감시견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언론에 일정한 통제를 가했을 때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잘 수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McChesney, 2004). 이렇게 시작한 감시견의 기능은 언론이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함은 물론, 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이재진, 2008).

언론의 감시견 역할은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 규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양승목(2006)의 진자운동모형은 언론이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유지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언론과 정부를 다음의 다섯 가지의 관계로 분류 한다: 적대관계, 견제관계, 공생관계, 유착관계, 일체관계. 첫째, 적대관계는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관계이다. 즉, 언론과 정부가 공존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타도해야할 적대적 관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견제관계이다. 앞서 서술한 적대관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면, 견제관계는 언론과 정부가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는, 민주 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정부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반대로 정부 역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지를 감시한다. 셋째, 공생관계는 언론과 정부가 서로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공존하는 관계를 말한다. 정부로서는 그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지층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언론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각종 정책 관련 정보의 진원지가 되는 정부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유착관계는 권위주의 정권에 많이 나타나던 형태의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로,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매우 제한적이며, 때때로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데 강제적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일체관계는 다섯 가지 진자운동모형 중 가장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표현한다.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권력의 도구” 역할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공산주의 국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관계이다(양승목, 2006, 370-371쪽). 이와 같은 진자운동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서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언론이 수행하고 있는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이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감시견 기능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잣대는 뉴스의 연성화 정도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신문이나 각 포털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는 오프라인의 기성 저널리즘에 비해서 기사의 게이트키퍼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널리즘에 비해 독자들의 선호도에 맞추려는 대중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김경희, 2001).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 뉴스의 연성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연성 뉴스의 보도는 감시견으로서의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에서 하이퍼링크의 수가 높게 나타나는 뉴스의 장르는 주로 연성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방송연예 및 스포츠 뉴스다.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무거운 경성 뉴스 보다 가볍게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오락 중심의 장르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안종묵·박광순, 2007). 이는 온라인 뉴스가 기존 언론과 같이 일반적으로 제공 되어지는 뉴스가 아니라 독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로 독자의 시선을 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블로그 저널리즘의 감시견 기능이 다른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겠으나 뉴스의 연성화를 감시견 기능의 한 차원으로 논의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연예, 오락 중심의 연성화된 뉴스는 뉴스 대상에 대한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감시견 기능은 정부 및 권력층의 권력 남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공익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언론의 고유한 비판 기능이라는 점에서 뉴스의 연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무비판적이고 흥미 위주의 성격이 강해 감시견 기능이 낮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연성 뉴스의 분석틀은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의 기준은 학자들 마다 다르게 제시해 왔다. 찰리(Charnley, 1948/2007)는 뉴스의 흥미도(interest)와 중요도(importance)에 따라 연성뉴스와 경성뉴스를 구분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국제관계, 교육, 법률 등 뉴스의 출처가 공적 영역이며 정보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적으로 담고 있는 뉴스를 경성뉴스로 보았고, 범죄, 금전, 성, 폭력, 진기한 것, 서스펜스, 미담 등 뉴스의 출처가 사적 영역이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뉴스를 연성뉴스로 구분한다. 패터슨(Patterson, 2000)은 20년 동안 미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 및 TV방송의 분석을 통해 연성 뉴스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기사의 유형, 맥락적 프레임, 문맥구조, 문체, 시의성, 정책·비정책 프레임, 실용성, 공적·사적 프레임, 인간적 관심사 프레임, 조치·비조치 행위 프레임, 책임 추궁 프레임, 이렇게 11가지의 기준에 따라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를 구분 지었다. 이러한 패터슨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김예란(2003)은 국내 실정에 맞게 다섯 가지로 축소한 연성 뉴스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적인 영역을 다루는가, 둘째, 인간의 감성적 반응을 유발하는 내용인가, 셋째, 시의성과 관련이 없이 다루어질 수 있는가, 넷째, 기사의 문맥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다섯째,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인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뉴스를 연성 뉴스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방송 3사 프라임 타임 뉴스의 연성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뉴스 아이템의 주제와 소재, 정보원 출처, 보도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뉴스의 절반 가까이 연성화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성 뉴스의 가장 많은 비중은 자사 홍보나 간접광고를 포함한 단순 정보 전달이 차지하고 있었고, 연성 뉴스의 주제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행과 경향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다(한진만·설진아, 2001).

본 연구에서는 기자 블로그의 감시견 기능을 주제적 측면에서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화의 정도와 내용적 측면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나타나는 정부와의 관계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온라인 저널리즘이 발전함에 따라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선호도에 따라 뉴스를 취사선택하여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는 뉴스 수용자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게 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연성 뉴스는 언론이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연성 뉴스의 보도 량을 분석함으로써 기자 블로그가 감시견의 특성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의 감시견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므로 블로그 게시물

에 나타난 정부와의 관계가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는 관계인지 여부를 내용 분석하여 언론의 감시권 특성에 있어서 전문기자와 시민기자 블로그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2) 상호작용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대두한 상호작용성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상호작용성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송신자와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메시지, 이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최환진, 2000). 대다수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간은 이메일, 채팅룸, 토론포럼, 온라인 투표 혹은 설문조사, 독자투고, 전자 게시판, 네티즌 리포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메일은 기자와 독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주고, 채팅룸은 기사를 중심으로 채팅 참가자들이 같은 주제를 공유하게 되며, 이에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링크시켜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온라인 투표 혹은 설문조사의 경우 적극적인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온라인 토론의 주제로 삼을 경우 상호작용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토론 포럼은 인터넷 상에서 개방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된다. 독자투고 또한 한 사람의 투고에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제가 된다. BBS(Bulletin Board System)라고 불리는 전자게시판은 이메일 기능과 토론 포럼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강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네티즌 리포트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기사로 독자에게는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기자에게는 다른 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최영·김병철, 2000). 인터넷 공간에서 상호작용성은 인터넷 토론장을 비롯하여,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 특히 인터넷 뉴스의 댓글 유형은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토론게시판의 댓글, 블로그의 댓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댓글들은 특정한 게시물과 내용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형성하여 해당 게시물과 댓글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존재하기도 한다(김재환, 2009, 9쪽).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을 다는 이용자의 특성은 대부분 능동적인 경우가 많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 게시물은 이용자들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게시물을 클릭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기사를 클릭하여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대해 의견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댓글로 작성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참여적 공중이 되는 것이다(김병철, 2004).

댓글은 게시물의 밑에 직접 작성함으로써 작성자의 의견을 피력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며,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 게시물을 읽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읽는 이용 행위는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및 미니홈피를 이용하는 요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권상희, 2007). ‘조선닷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댓글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홍보성글, 인신공격, 악플 등의 댓글 형태인 자기 미디어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사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2-3개의 짧은 문장으로 바로바로 비난성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토론의 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아직 성숙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조수선, 2007). 인터넷 뉴스 등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많은 댓글에서 반말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등의 언어폭력이 나타나거나 상대에 대한 비난을 표현하고 있었다(김병철, 2004; 최동성·최성은·최용준, 2008). 이러한 비소통적 상호작용 역시 인터넷이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반면 댓글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나누며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인터넷 공간을 토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적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다(김민하, 2010). 또한 인터넷 포털뉴스의 댓글이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기존의 게시판과는 달리 짧은 시간에 의견들이 집중되어 여론을 형성하며, 댓글쓰기를 통한 의견표명을 비롯하여 댓글 읽기를 통해 여론 지각과 개인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뉴스의 댓글 여론에서 다수의 의견이 주류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댓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 같은 의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최동성 외, 2008). 그리고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수용자는 댓글을 읽는 것이 개인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고, 그 영향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댓글을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을수록, 그리고 댓글에 나타난 의견분포가 여론과 일치한다고 믿을수록 더 강하게 작용한다(정일권·김영석, 2006). 이와 같이 댓글을 읽고 쓰는 행위는 여론 형성에 심오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토론장에 비하면 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렵지만 댓글이 가지는 간단명료함과 속보성이라는 특성은 댓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언론사의 전문기자과 시민기자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성을 사회의 감시견과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1-2에서는 사회의 감시견이 블로그 콘텐츠에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와 어느 정도 연성화 되었는가를 하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 연구문제 1 : 시민기자 블로그와 전문기자 블로그 간의 사회의 감시견적인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언론은 정부와 상호 비판적인 입장에서 견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양승목, 2006). 이는 언론이 정부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위해 감시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언론인으로서의 규범과 경직된 조직문화에 숙련된 전문기자에 비해 자유로운 견해 표현이 가능한 시민기자들은 정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연구문제 1-1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에서 정부와 견제관계를 이루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또한, 시민기자의 뉴스는 전문기자가 작성한 뉴스에 비하여 연성 뉴스를 많이 보도하는 특성을 가진다. 시민기자가 작성한 뉴스에서 연성 뉴스가 많아지는 이유는 시민기자들의 보도성향이 주로 생활 밀착형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수필체와 서간체형 문장을 활용하는 등 가볍고 흥미롭게 기사 주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뉴스를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독자들의 뉴스 구독 경향에 따라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리고 전문기자 중심 언론사의 뉴스 보도가 엘리트 기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다 대중적인 시민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온라인 언론사에서 경성뉴스보다 연성뉴스를 더 많이 다루게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박광순·안종묵, 2006). 전문기자의 블로그는 정형화된 저널리즘적 관행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시민기자의 경우 흥미 위주의 보도를 선호하는 독자들의 구독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연성화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연성화의 경향이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문제 1-2를 설정하게 되었다.

-연구문제 1-2: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에서 연성화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다음의 연구문제 2-1과 연구문제 2-2에서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상호작용성이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 중 어느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 연구문제 2 :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의 상호작용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온라인 저널리즘의 특징 중 하나는 상호작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의 개념이 대두되는 시점에 온라인에서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고 의견을 활발히 나누게 된 것은 기존의 공론장의 개념이 온라인으로 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공론장의 특징은 개인화된 관점에서 생활밀착형으로 보도하는 시민기자의 블로그의 경우 전문기자의 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일반인들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민인철, 2007). 따라서 상호작용성이 전문기자 블로그보다 시민기자 블로그에서 더욱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문제 2-1을 세우고, 블로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1: 전문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과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서 상호작용성의 양적 측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위의 연구문제 2-1에서는 상호작용성의 양적측면을 댓글의 빈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고, 연구문제 2-2에서는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뉴스 등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많은 댓글에서 반말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등의 언어폭력이 나타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표현하고 있었다(김병철, 2004; 최동성 외, 2008). 이러한 비소통적 상호작용은 인터넷이 공론장으로서 발전하는 데에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반면, 댓글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나누며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인터넷 공간을 공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적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다(김민하, 2010; 양민제·김민하, 2009). 기성 매체의 전문기자 블로그는 권위적이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또한 이를 지각하고 정제된 표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틀에서 자유로운 시민기자의 블로그는 게시물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인지적, 정서적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댓글에도 다소 도발적이고 비규범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비소통적 상호작용이 시민기자 블로그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데 반해 정형화된 틀 안에서 엘리트 중심의 취재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전문기자 블로그에서는 소통적 상호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연구문제 2-2: 전문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과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서 상호작용성의 질적 측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민기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오마이뉴스>²⁾와 전문기자로 구성된 언론사인 <한겨레>³⁾의 기자 블로그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언론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저널리즘적 특성의 차별성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2000년 인터넷 신문으로 출범한 이래에 주류 언론 미디어와 차별되는 형식으로 시민기자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미디어로 자리 매김을 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김은규, 2005). 그리고 <한겨레>는 기존의 언론사 중 기자 블로그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다.⁴⁾ 물론 <오마이뉴스>에도 상근기자라는 이름의 전문기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오마이뉴스>에서 분석대상으로 추출한 블로그는 시민기자 블로그로 제한하였다. <오마이뉴스>에는 현재 약 6만 여명의 시민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방대한 양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로그 게시물과 기사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었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안에 생성되고 활동한 모든 기자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겨레>의 경우 <오마이뉴스>에 비해 기자 블로그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기자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기간 동안 업로드된 게시물들을 분석하였다⁵⁾. 연구문제를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2) '오마이뉴스' 기자 블로그 웹주소 <http://blueblog.ohmynews.com>

3) '한겨레' 기자 블로그 웹주소 http://part.blog.hani.co.kr/blog/editor_main.html

4) 기존 오프라인 종속형 언론사의 기자 블로그 현황은 <중앙일보>에서 35개, <동아일보> 약 80여개, <한겨레> 약 120여개로 조사되었다.

5)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블로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마이뉴스>의 경우, 기자 이름 별로 블로그가 목록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게시물 순서대로 목록이 올라오기 때문에 특정 기간으로 정한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로드 되어진 기자 블로그의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블로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정치 관련 주제에 관한 게시물만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이 논문의 주제인 감시견과 상호작용성의 기능이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연구결과가 주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상쇄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둔 이유에서다.



<그림 1>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의 기자 블로그 웹사이트

각각의 기자 블로그에서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블로그에서 10개의 블로그 게시물을 무선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여 코딩을 하였으며, 블로그의 게시물의 수가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 블로그 게시물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기자 블로그는 <오마이뉴스>에 속해있는 129개의 기자 블로그와 1,197개의 게시물, 5,068개의 댓글이 분석되었으며, <한겨레>에서는 총 128개의 기자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있는 1,006개의 게시물, 2,563개의 댓글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문제 1의 사회의 감시견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1>의 분석유목을 세웠다. 언론과 정부 관계의 진자운동모형은 양승목(2006)의 연구에서 차용한 것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다섯 가지의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 분석 상 그다지 큰 차별화가 되지 않는 항목은 통합하여 세 가지의 유목으로 구성하였다.⁶⁾ 그리고 각 언론사의 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연성’인지 ‘경성’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Baum & Jamieson, 2006; Charnley, 1948/2007; 최영목, 1997; 한진만·설진아, 2001)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세웠으며, 연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예란(2003)의 연구를 차용하여 연성의 기준을 네 가지로 구분, 각각의 게시물이 연성 분류의 기준을 몇 가지씩 포함하고 있는지 1부터 4까지의 척도로 코딩하였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게시물에 달린 전체 댓글의 수를 분석하였고, 그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이 달릴 경우에 이를 댓글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아 댓글에 대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빈도를 숫자로 세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소통적 상호작용과 비소통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통적 상호작용은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한 적극적 수용 및 포용력을 가지는 열린 사고를 하는 상호작용을 말하고, 이에 반해 비소통적 상호작용은 닫힌 사고로 자신과 동질적인 의견만

<한겨레>의 경우, 전체 기자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분석을 위해 추출된 기자 블로그 게시물은 <오마이뉴스>의 경우와 동일한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로드 된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실제 분석에 앞선 사전분석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적대관계나 일체관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블로그 게시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적대관계와 견제관계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유착관계와 일체관계가 정부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등 의미상 대동소이 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항목을 통합하게 되었다.

을 수렴하려고 하고 이질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소통 작용을 뜻한다(김민하, 2010). 소통적 상호작용과 비소통적 상호작용의 분석은 김병철(2004)의 연구를 차용하여 게시물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댓글, 존댓말로 이루어진 댓글,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고 있는 댓글, 작성자의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을 소통적 상호작용으로, 반말이나 욕설로 이루어진 댓글을 비소통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목에 해당하는 댓글의 개수를 숫자로 세어 코딩하였다.

<표 1> 연구문제 1에 따른 분석유목 및 조작적 정의

분석유목		조작적 정의
정부와의 관계	적대/견제	블로그 게시물에 정부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방하거나 비판적,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
	공생	블로그 게시물에 정부에 대해 타협적이고 상호공존을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유착/일체	블로그 게시물에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관해 무비판적인 절대적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
연성-경성	연성	문화, 예술 등 엔터테인먼트 장르 및 뉴스의 출처가 사적 영역이며 범죄, 성, 폭력, 진기함, 미담 등과 같은 개인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개인 사생활 혹은 관심사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내용
	경성	뉴스의 출처가 공적 영역이며 정치, 경제, 산업, 외교, 국제이슈를 비롯한 것으로 정보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연성의 기준	인간적 관심사	감성적 반응을 유발하는 주제/내용
	내용의 시의성	시의성에 관련하지 않은 주제/내용
	문맥구조	내러티브 형식
	공적-사적	사적인 영역을 다룸

<표 2> 연구문제 2에 따른 분석유목 및 조작적 정의

분석유목	조작적 정의
전체 댓글의 수	게시물에 달려있는 전체 댓글의 수
상호작용 댓글의 수	댓글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댓글의 수
소통적 상호작용	게시물의 내용과 연관성을 나타내는 댓글의 수
	존댓말로 이루어진 댓글의 수
	합의 또는 동조를 이루고 있는 댓글의 수
	댓글 작성자의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의 수
비소통적 상호작용	반말이나 욕설,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댓글의 수

<표 3> 항목별 신뢰도

항목	신뢰도		신뢰도
전체 게시물의 연성-경성	0.83	반말 혹은 욕설 댓글 수	1.00
전체 게시물의 연성의 기준	0.80	합의 혹은 동조 댓글 수	0.93
전체 게시물의 연성의 정도	0.81	논리적 댓글 수	0.91
전체 게시물과 정부의 관계	0.80	정치관련 게시물의 상호작용 댓글 수	1.00
정치관련 게시물과 정부의 관계	0.80	정치관련 게시물의 연관되는 댓글 수	0.92
정치관련 게시물의 연성-경성	0.82	정치관련 게시물의 존댓말 댓글 수	1.00
댓글 수	1.00	정치관련 게시물의 반말 혹은 욕설 댓글 수	1.00
상호작용 댓글 수	1.00	정치관련 게시물의 합의 혹은 동조 댓글 수	0.91
연관되는 댓글 수	0.95	정치관련 게시물의 논리적 댓글 수	0.90
존댓말 댓글 수	1.00		

실제 코딩에 앞서 실시한 신뢰도 검증은 각 언론사의 기자 블로그를 무작위로 10개씩 추출하여 코딩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은 언론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두 명이 수행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Holsti의 신뢰도 계수 공식에 의하여 추출되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평균 .91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라고 할 수 있겠다.

4. 연구결과

1)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 나타난 정부와의 관계

연구문제1-1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 결과,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서 정부와의 일체 및 유착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게시물은 전체의 73.0%인 874건이었으며, 적대 및 견제관계가 드러난 게시물은 전체 24.2%인 290건이었다. 그리고 33건의 게시물에서 정부와의 공생관계가 드러났다. 한편, <한겨레> 기자 블로그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게시물의 비율이 <오마이뉴스>보다 많은 88.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견제관계는 10.2%(103건)로 드러났으며, 공생관계는 1.4%(14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두 언론사의 기자 블로그 모두 정부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게시물의 비중이 많은 것은 블로그가 개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다루어지는 콘텐츠 또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콘텐츠가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시기가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09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와 같은 진보적인 언론사의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정부와의 관계가 유착 혹은 일체 관계를 반영하는 논조의 게시물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언론이 감시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견제해야할 정부와의 견제관계가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블로그에서 추출된 10개의 게시물 중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견제관계가 드러나는 게시물의 개수를 세어, 각각의 블로그를 1에서 10 사이의 수치를 가지는 등간 척도를 구성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⁷⁾. 정부와의 견제관계를 견지하는 정도가 <오마이뉴스>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직적 틀에 구속되지 않는 시민기자가 보다 자유로운 시각에서 의제를 설정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반면에 전문기자는 다소 복잡한 게이트키피ン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편향적인 시선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보도를 하는 저널리즘적 규범을 보다 강하게 관철한다. 이러한 전문기자의 보도 성향은 기자 블로그의 게시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관행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표 4>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 드러난 정부와의 관계

출처		정부와의 관계			
		무관	적대/견제 (부정)	공생 (중립)	전체
오마이뉴스 (n=1,197)	빈도	874	290	33	1,197
	비율(%)	73.0	24.2	2.8	100.0
한겨레 (n=1,006)	빈도	889	103	14	1,006
	비율(%)	88.4	10.2	1.4	100.0

$\chi^2 = 82.139, df = 4, p = 0.000$

<표 5> 적대 및 견제관계에 대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의 평균비교

변수	오마이뉴스 (n=129)		한겨레 (n=128)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견제관계	2.23	2.819	0.79	1.390	5.213	0.000

나아가 시민기자 블로그가 전문기자 블로그에 비해 감시견의 역할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체 블로그 게시물 중 정치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을 따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치관련 주제는 전체 블로그 게시물의 다른 주제들 보다 정부와의 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5>에서와 같이 전체 블로그 게시물 중 정치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시물이 <오마이뉴스>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 혹은 견제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시물의 비율은 <오마이뉴스>에서 전체의 69.6%로 나타났으며, <한겨레>에서는 전체 55.9%의 비율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했던 전체 블로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정부와의 관계와는 무관한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에 정치관련 주제를 다루는 게시물에서는 정부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시물이 무관한 게시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오마이뉴스>가 <한겨레>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의 게시물이 더 빈번히 업로드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정부에 대한 적대 및 견제관계에 대한 평균비교를 수행하였다.⁸⁾ 전체

7) 견제관계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 Levene의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0.05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등분산 가정이 성립되지 않은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46.737, p=0.000).

8)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0.05보다 작은 값이 도출되어 등분산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은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

블로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마이뉴스>에서 적대 및 견제관계를 견지하는 게시물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다(<표 7> 참조).

<표 6>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에 나타난 정부와의 관계

출처		정부와의 관계			
		무관	적대/견제 (부정)	공생 (중립)	전체
오마이뉴스 (n=207)	빈도	53	144	10	207
	비율(%)	25.6	69.6	4.8	100.0
한겨레 (n=93)	빈도	37	52	4	93
	비율(%)	39.8	55.9	4.3	100.0

$\chi^2 = 6.970, df = 3, p = 0.073$

<표 7>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의 적대 및 견제관계에 대한 평균비교

변수	오마이뉴스 (n=129)		한겨레 (n=128)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적대/견제	1.11	1.756	0.40	1.022	3.966	0.000

2) 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화

시민기자가 주체인 <오마이뉴스>와 전문기자 중심의 <한겨레>의 기자 블로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여 ‘연성’의 주제를 많이 가지는지 ‘경성’의 주제를 많이 가지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연성-경성의 분포에 대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성에 속하는 주제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엔터테인먼트 장르, 범죄, 성, 폭력 중심의 사회적 이슈, 혹은 개인 사생활이나 관심사’ 등에 관련한 이슈로,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가벼운 흥미를 유발하며, 개인적인 긴장의 완화 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말한다. 반면 경성에 해당되는 주제는 ‘정치, 경제, 외교, 산업 및 국제이슈’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요한 정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국내외의 중요한 어젠더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주제를 포함 한다(Baum & Jamieson, 2006). <표 7>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연성과 경성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시민기자와 전문기자 블로그 모두 연성의 주제를 월등히 많이 다루고 있었다. 구체적인 분포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연성의 주제가 전체 1,197건 중 85.3%인 1,021건의 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한겨레>의 경우에는 전체 1,006건 중에 798건이 연성화된 주제를 가지는 게시물로 79.3%를 나타냈다. 시민기자와 전문기자라는 차이를 막론하고 개인 미디어라는 블로그의 특성상 경성의 주제를 다루기보다 연성의 주제를 더욱 많이 다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성화된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오마이뉴스>는 14.7%를, <한겨레>는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기자 블로그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었다(F=25.391, p=0.000).

아울러 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 평균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실시를 통해 알아보았다.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각의 블로그에서 분석대상으로 추출된 10개의 게시물에서 연성인 게시물의 개수를 세어, 각각의 블로그를 1에서 10사이의 수치를 가지는 등간척도로 구성한 뒤 t 검정을 실시하였다.⁹⁾ <표 9>과 같이 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 평균은 <오마이뉴스>가 <한겨레>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므로, <오마이뉴스>에서 연성화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앞에 논의된 연성과 경성의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오마이뉴스>에서 연성의 게시물이 더욱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p=0.000)가 도출되었다.

<표 8> 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경성 분포

출처		연성-경성		
		연성	경성	전체
오마이뉴스 (n=1,197)	빈도	1,021	176	1,197
	비율(%)	85.3	14.7	100.0
한겨레 (n=1,006)	빈도	798	208	1,006
	비율(%)	79.3	20.7	100.0

$\chi^2 = 13.547, df = 1, p = 0.000$

<표 9> 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 평균 비교

변수	오마이뉴스 (n=129)		한겨레 (n=128)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성	8.00	3.115	6.32	3.574	4.015	0.000

연구문제 1-2의 추가적인 검증을 위하여 기자 블로그 게시물 중 연성인 게시물에 네 가지의 연성화 기준 중 어느 정도를 포함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응답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¹⁰⁾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 게시물이 여러 가지의 연성의 기준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의 합이 100.0%가 나오는 것이 아닌, 각각의 유목에 대한 비율만 서술하였다. 분석 결과,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는 연성기준과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는 연성기준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성의 기준은 시의성과 관련하지 않은 주제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시물로 <오마이뉴스>의 경우 70.1%를, <한겨레>의 경우 74.1%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성의 기준은 인간의 감성적 반응을 유발하는 주제나 내용을 다루는 게시물로 <오마이뉴스>에서 6.5%, <한겨레>에서 6.4%가 나와 다른 기준에 비해 현저히

9)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t 값과 유의확률을 판단하여야 한다. 검증 결과, Levene의 유의확률이 0.000이 나와 0.05보다 작기 때문에, 등분산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F=13.830, p=0.000).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 값과 유의확률을 파악하였다.

10)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기자 블로그 게시물 중 연성인 게시물 한 개당 연성의 기준을 최소 한 가지에서 네 가지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응답으로 코딩되었기 때문이다.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연성 기준은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는 게시물로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은 사적영역을 나타내는 게시물로 전체의 48.0%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겨레>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사적영역을 나타내는 게시물로 41.0%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은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는 게시물로 23.1%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의 연성의 기준의 합을 구해보았을 때, <오마이뉴스>는 2,119개의 연성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한겨레>는 1,453개의 연성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마이뉴스>의 연성정도가 <한겨레>보다 강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0>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된 연성의 기준

출처		연성 기준				
		인간적 관심사	시의성 무관	내러티브 형식	사적영역	전체
오마이뉴스 (n=1,021)	빈도	78	839	627	575	2,119
	비율(%)	6.5	70.1	52.4	48.0	
한겨레 (n=798)	빈도	64	745	232	412	1,453
	비율(%)	6.4	74.1	23.1	41.0	

<표 11> 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정도의 평균비교

변수	오마이뉴스 (n=1,197)		한겨레 (n=1,00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성정도	1.77	1.044	1.45	1.037	7.299	0.000

또한, 시민기자 블로그와 전문가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에서 분류한 네 가지의 연성 기준을 각각의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서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방법은 하나의 게시물에서 네 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포함하면 '1'로, 두 개의 기준을 포함하면 '2'로, 세 개의 기준을 포함하면 '3'으로, 네 가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4'로 코딩하여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¹¹⁾. t 검정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의 연성화 정도는 평균 1.77이며, <한겨레>의 연성화 정도는 평균 1.45로 <오마이뉴스>의 연성화 정도가 <한겨레>의 경우보다 높다. 앞의 연성-경성 분포의 분석과 연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중응답 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연구문제 1-2의 결과 전문가 블로그와 비교해 볼 때 시민기자 블로그의 연성화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표 11> 참조).

앞선 감시견 관련 분석과 같이 연성화 정도와 관련해서도 정치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을 따로 분류하여 연성-경성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정치관련 주제 자체가 경성화된 게시물이지

11) 연성 정도의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 Levene의 유의확률 값이 0.949가 나왔기 때문에 등분산의 가정이 성립된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0.004, p=0.949).

만 위에서 언급한 연성화 기준 4가지에 입각하여 서술한 게시물의 경우 연성화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블로그 게시물을 분석하였을 때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체 블로그 게시물의 분석에서는 두 언론사 모두 연성의 게시물이 많이 나타났던 반면에 정치 관련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 게시물의 비교에서는 <오마이뉴스>가 연성화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었던 반면 <한겨레>에서는 경성화된 게시물이 많이 나타났다.

<표 12>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에 나타난 연성-경성 분포

출처		연성-경성		
		연성	경성	전체
오마이뉴스 (n=207)	빈도	112	95	207
	비율(%)	54.1	45.9	100.0
한겨레 (n=93)	빈도	37	56	93
	비율(%)	39.8	60.2	100.0

$\chi^2 = 5.265, df = 1, p = 0.022$

<표 13>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정도의 평균비교

변수	오마이뉴스 (n=207)		한겨레 (n=93)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성정도	0.78	0.864	0.53	0.746	2.423	0.016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의 연성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의 기준이 된 네 가지의 연성 유무를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앞서 <표 11>의 분석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한겨레>보다 <오마이뉴스>에서 연성의 기준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참조).¹²⁾

3) 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의 상호작용 빈도¹³⁾

전문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과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2-1을 규명하기 위하여, 댓글에 달린 댓글의 개수, 즉 댓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12) 유의확률 값이 0.164가 도출되어 등분산의 가정이 성립된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1.943 p=0.164).
 13) 시민기자 블로그와 전문기자 블로그가 상호작용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기자 블로그의 게시물에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려있는지 빈도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오마이뉴스>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는 5,068개의 댓글이 달렸고, <한겨레>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는 2,563개의 댓글이 달렸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서 분석대상으로 추출된 블로그 게시물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한 개의 게시물 당 평균적으로 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지 산출하였는데, <오마이뉴스>에서는 한 개의 게시물 당 평균 4.23개의 댓글이 달렸고, <한겨레>는 평균 2.54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결과를 얻었다. 빈도분석의 결과를 통해 전문기자 블로그에 비해 시민기자 블로그에서 더 활발한 독자들의 참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댓글을 빈도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댓글의 상호작용이란, 블로그 게시물을 읽은 독자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을 때, 그 댓글에 대한 또 다른 댓글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댓글은 먼저 댓글을 작성한 독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기자 블로그와 전문기자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댓글에 대한 상호작용 빈도는 <표 14>에서와 같이 <오마이뉴스>에서 3,213건, <한겨레>에서 1,076건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블로그의 전체 댓글의 수에 대비하여 볼 때, 상호작용을 이루는 댓글의 비율은 전체 대비 <오마이뉴스>가 63.4%(3,213건)이고, <한겨레>는 42.0%(1,076건)이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마이뉴스>에서 상호작용성이 <한겨레>에 비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체 블로그 게시물 중 정치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상호작용 빈도는 <표 15>와 같다.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 대해서도 <오마이뉴스>에서는 전체 대비 66.9%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겨레>에서는 18.8%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서 상호작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편차가 전체 게시물의 경우보다 크다는 점을 볼 때 정치관련 이슈에 대한 상호작용이 시민기자의 블로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4> 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 대한 상호작용빈도

출처	빈도	전체 대비 비율(%)
오마이뉴스 (n=5,068)	3,213	63.4
한겨레 (n=2,563)	1,076	42.0

<표 15>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 대한 상호작용빈도

출처	빈도	전체 대비 비율(%)
오마이뉴스 (n=1,261)	843	66.9
한겨레 (n=255)	48	18.8

4) 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의 소통적 상호작용과 비소통적 상호작용

연구문제 2-2를 규명하기 위하여 각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 달린 소통적 혹은 비소통적 상호작용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6>은 위의 요소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소통적 상호작용에서 연관이 있는 댓글이 <오마이뉴스>가 <한겨레>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소통적 상호작용의 요소들은 모두 <한겨레>가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연관적 댓글은 <오마이뉴스>에서 91.2%,

<한겨레>에서 83.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시민기자와 전문기자의 구분 없이 기자 블로그 자체를 이용하는 독자들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와는 달리 독자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블로그에 접속을 하고, 블로그 게시물 중 자신이 원하는 게시물을 읽음으로써 그 게시물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모두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연관적 댓글의 수는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둘째, 존댓말 댓글의 비율은 <오마이뉴스>에서 66.1%, <한겨레>에서 75.4%로 나타났다. 댓글에서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호 존중의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는 댓글의 경우 <오마이뉴스>에서는 11.7%, <한겨레>에서는 30.5%로 나타났다.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는 댓글은 상대방의 댓글에 대해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이슈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뜻을 모아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도모하기도 한다. 뚜렷한 예로 ‘촛불집회’를 들 수 있다. 지난 해 매우 광범위하게 열렸던 ‘촛불집회’는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온라인을 통해 모여들고 있었다. 넷째로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이다.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은 <오마이뉴스>에서 10.1%, <한겨레>에서 25.8%로 나타나 후자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블로그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한 단순한 자신의 의견 표명에서 발전된 형태로 블로그의 게시물이나 상대방의 댓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욕설이나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댓글의 비율이다. <오마이뉴스>에서는 34.0%가, <한겨레>에서는 25.1%가 이에 속한다. 욕설의 정도 또한 <오마이뉴스>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단순한 말장난은 물론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이 익명성을 내세우며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기자 블로그 게시물 댓글의 분석

구분		빈도	전체 대비 비율(%)	
오마이뉴스 (n=5,068)	소통적 상호작용	연관적 댓글	4,620	91.2
		존댓말 댓글	3,343	66.1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는 댓글	594	11.7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	505	10.1
	비소통적 상호작용	욕설이나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댓글	1,726	34.0
한겨레 (n=2,563)	소통적 상호작용	연관적 댓글	2,133	83.2
		존댓말 댓글	1,933	75.4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는 댓글	783	30.5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	662	25.8
	비소통적 상호작용	욕설이나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댓글	644	25.1

추가적으로 정치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을 따로 추출하여 댓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기자 블로그와 시민기자 블로그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게시물의 댓글을 분석하는 것은 게시물 주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미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호작용성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1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 댓글은 전체 블로그 게시물 댓글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소통적 상호작용 중 연관성이 있는 댓글은 <오마이뉴스>에서 전체 댓글 중 92.2%를 차지하였고, <한겨레>에서는 72.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연관적 댓글을 제외한 소통적 상호작용의 분석유목인 존댓말 댓글,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는 댓글,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은 모두 <오마이뉴스>에서보다 <한겨레>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소통적 상호작용에서는 <한겨레>는 전체 댓글의 26.7%, <오마이뉴스>에서 41.0%로 나타나 비소통적 상호작용은 <오마이뉴스>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1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전문기자 블로그 게시물보다 시민기자 블로그 게시물의 댓글에서 상호작용이 더욱 강하게 관찰되었지만, 연구문제 2-2의 검증을 통해 강하게 이루어진 상호작용이 반드시 소통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기자 블로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 간의 단순한 상호작용은 시민기자 블로그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소통적 상호작용은 전문기자 블로그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7> 정치관련 블로그 게시물 댓글의 분석

구분		빈도	전체 대비 비율(%)	
오마이뉴스 (n=1,261)	소통적 상호작용	연관적 댓글	1,163	92.2
		존댓말 댓글	744	59.0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는 댓글	152	12.1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	169	13.4
	비소통적 상호작용	욕설이나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댓글	517	41.0
한겨레 (n=255)	소통적 상호작용	연관적 댓글	185	72.5
		존댓말 댓글	187	73.3
		합의 혹은 동조를 이루는 댓글	72	28.2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 댓글	87	34.1
	비소통적 상호작용	욕설이나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댓글	68	26.7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의 감시견과 상호작용성의 차원에서 살펴 본 기자 블로그 콘텐츠의 저널리즘적 특성이 전문기자와 시민기자 블로그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의 감시견은 블로그 콘텐츠에 반영되고 있는 정부와의 관계의 측면과 블로그 콘텐츠의 연성화 정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상호작용성은 댓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블로그 129개와 <한겨레>의 전문기자 블로그 128개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분석 대상 블로그 게시물은 <오마이뉴스> 기자 블로그 게시물 1,197건, 정치관련 게시물 207건, <한겨레> 기자 블로그 게시물 1,006건, 정치관련 게시물 93건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의 감시견 기능은 전문기자의 블로그가 연성화 정도가 훨씬 낮고 경성화된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룬다는 점에서는 강하게 발휘되고 있었으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시민기자의 블로그에서 더욱 빈번히 나타나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감시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감시견 기능을 고려할 때 시민기자와 전문기자 각각의 블로그 특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견해 본다. 상호작용 기능은 일반적으로 시민기자 블로그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소통적 상호작용은 전문기자 블로그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민기자 블로그에 비해 전문기자 블로그에서 보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으로만 뉴스를 제공하는 시민기자의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보다 오프라인으로 뉴스를 접한 후 자신이 관심이 가는 뉴스를 작성한 기자나 그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 전문기자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관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문기자와 시민기자 블로그에서 단점을 보완하여 성숙된 댓글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면 기자 블로그가 상호작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댓글 문화를 통해 공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개인적인 미디어로 주목받기 시작한 블로그는 그 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적인 이슈를 담아내는 사회적인 미디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블로그의 의제설정기능이나 공론장 역할, 또는 블로그에서의 뉴스 보도와 같이 저널리즘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Blood, 2003; Gilmor, 2003; Lasica, 2003; Lowrey, 2006; Matheson, 2004). 반면 본격적으로 기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내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동근(2009)의 연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기사의 프레임 내용분석을 통해 <오마이뉴스>와 전현직 기자 블로그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여전히 기자 블로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분석 연구는 희소하다. 이 연구는 기자 블로그가 사회의 감시견 기능과 상호작용 기능에 대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기자와 전문기자 블로그 간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특히 언론의 감시견 기능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비판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실증적인 차원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관계와 연성화에 입각한 분석이 다소 낮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논문의 시도가 언론의 감시견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차이에서 나오는 저널리즘적 기능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념적 성향이 동일한 두 언론사의 시민기자 블로그와 전문기자 블로그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기자 블로그라는 같은 매체에서도 시민기자와 전문기자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블로그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블로그의 이용동기나 목적을 조명하였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블로그 저널리즘의 내용적 차원에서 다양한 분석 유목을 통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는 블로그가 개인적인 미디어에 그치지 않고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는 조사대상을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같은 두 개의 언론사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념적 차이를 가지는 다른 언론사까지 모두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언론의 정파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감시견 기능과 같은 저널리즘적 특성은 언론사와 정부가 가지는 이념적 정체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차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유사한 언론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된 시민기자 중심의 <오마이뉴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온라인 언론사는 일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그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성 언론사인 <한겨레>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 등과 같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전문기자가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시민기자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전문기자와 시민기자 언론사로 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방법이 내용분석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자와 일반인들이 블로그 콘텐츠의 저널리즘적인 특징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블로거 및 이용자 인식과 관련한 연구가 함께 수행된다면 블로그 저널리즘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기자 블로그의 생성 조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요구된다.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과연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특성이 기자들의 개인 블로그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기자 블로그가 어떠한 환경에서 생성이 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언론사간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수익성을 염두에 둔 차원에서 기자들의 블로그가 개설된다는 점, 또는 기자 개인의 브랜딩을 위한 방편으로 블로그가 활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본 연구 결과의 보다 현실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하여 볼 때, 이 연구의 중심주체인 블로그 저널리즘의 감시견 기능과 상호작용 기능이 어떠한 효과와 파장을 갖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기자 블로그의 감시견 기능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회적 다원화의 가속화이다. 기성 언론인에게는 블로그가 게이트 키퍼와 조직문화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정규 기사에서 담지 못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의 다원화에 기여한다. 특히나 개인화가 강한 서구문화에 비해 집단화된 문화에 익숙한 국가일수록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올바른 여론문화 창출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통제된 언론 시스템으로 인해 제한된 정보의 공급에 따라 행동의 선택 폭도 넓지 못했기에 이 같은 다원화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블로그 게시물의 작성 주체인 기자들 역시 조직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으로서 진정성 어린 글을 통해 독자들 과 보다 친밀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환경은 언론사의 탈권위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일반인들의 언론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이는 다시 기자들의 글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을 넘어서 주관 있는 비판의식을 고양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다원화의 선순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기능의 효과 역시 가시적이다. 기성 저널리즘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통한 일방향적인 정보전달에 치중하였다면 기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블로그 저널리즘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기에 수많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메시지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창출한다(지정용, 2005). 이러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의 뉴스생산은 많은 이들의 열린 사고와 공유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그 파급 효과는 실로 배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 평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등 글로벌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활발한 참여는 그만큼 단순한 정보전달의 차원에 머물던 과거의 저널리즘이 독자들의 행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개방과 공유와 참여의 매체로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의 특징은 제한된 시각의 강압적 동원이 아니라 다원화된 시각에 바탕을 둔 자유의지의 선택에 기반했다는 점이고, 이러한 관점과 시각의 다원화를 바로 기자들의 블로그 저널리즘이 상당 부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블로거로서의 기자들이 수행하는 감시견의 기능과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기자 블로그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기존의 공론장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블로그의 환경적 특징은 블로그가 공론장으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기자 블로그는 나아가 블로그 저널리스트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블로거와 이용자들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가 된다. 기자 블로그에서도 기자와 일반인의 구분은 모호해지며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뉴스를 생산하게 된다. 불과 한 세대 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시민기자라는 직업이 출현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파퓰리즘을 적절히 반영한 언론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시민기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시민기자제가 이제는 튼튼히 뿌리내리게 되었고, 역기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기능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블로그 저널리스트가 시민기자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 활동 양태가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시민기자가 진화되어 온 과정에 비추어 블로그 저널리스트의 미래를 기쁘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찰은 아직까지 미처 출현하지 못한 저널리즘의 새로운 직업군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고 대처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기성 저널리즘이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롭게 자리매김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블로그와 같이 진화하는 매체와 이를 적절히 수용하여 창출되는 새로운 직업군이 앞으로 저널리즘의 직업적 발전 양상 및 전 사회에 미칠 파장을 미리 예견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지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Ⅰ 참고문헌

- 권상희 (2007). 인터넷 미디어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차원 연구: 미디어 양식별 이용자의 인식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2호, 46-97.
- 김경희 (2001).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정보처리 지속에 관한 연구. 『언론과사회』, 제9-1호, 47-97.
- 김경희 · 윤영민 (2008). 시민기자로서의 블로거의 활동 동기와 뉴스 생산 과정: 방송사 블로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미디어경제와문화』, 제6-4호, 40-84.
- 김동률 (2009). 언론의 정치권력화: 재벌 정책 보도의 정권별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5호, 296-340.
- 김민하 (2008).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와 시민공동체 형성의 전망: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의 공공저널리즘적 기능과 한계. 『한국언론학보』, 52-4호, 106-128.
- 김민하 (2010). 신문 저널리즘의 역동성과 뉴스 이용자의 창조적 진화. 김동윤 외 『뉴스 수용자의 진화』, 12-48.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병철 (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의 상호작용적 특성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4호, 147-180.
- 김병철 · 최영 (2004).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45-82.
- 김예란 (2003).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그 효용의 실제』. 서울: 미디어연구소.
- 김은규(2005). 인터넷과 시민참여 미디어: 오마이뉴스의 성과와 과제. 『동서언론』, 제9집, 325-350.
- 김주윤 (2005). 『국내 ‘Blog’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저널리즘 기계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수 (2004). 1인 미디어, 블로그의 확산과 이슈. 『정보통신정책』, 제16-22호, 31-43.
- 김채환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의 이용과 상호작용성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권 1호, 5-44.
- 김홍규 · 황은중(2008).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언론인 인식유형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3호, 359-384.
- 민인철 (2007). 인터넷 주류언론 기자와 인터넷 대안언론 기자의 독자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이닷컴』과 『오마이뉴스』 기자들과의 면접 사례 비교. 『한국방송학보』, 제21-3호, 204-240.
- 박노일 · 남은하 (2008). 블로그 이용 동기가 저널리즘 역할인식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2-1호, 334-358.
- 안중목 · 박광순 (2007).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7-2호, 335-372.
- 양민제 · 김민하 (2009). 온라인 시민저널리즘 양상과 시민 영향력에 관한 한·미 간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5호, 463-495.
- 양승목 (2006). 언론과 정부의 관계. 오택섭 · 권혁남 · 김성태 외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63-387. 경기: 나남.
- 유재천 · 이민웅 (1994). 『정부와 언론』. 경기: 나남.
- 윤영철 (2001).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7호, 182-231.
- 이동근 (2009). <오마이뉴스>와 전현직 기자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기사의 프레임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7-2호, 5-29.
- 이재진 (2008). 언론의 파수견 개념의 발전과 적용: 한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1호, 108-145.
- 정일권 · 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 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4호, 302-327.
- 조수선 (2007). 온라인 신문 댓글의 내용분석: 댓글의 유형과 댓글 게시자의 성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5-2호, 65-84.
- 지정용 (2005). 『블로그의 저널리즘 기능 연구: 블로그 콘텐츠 인용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성 · 최성은 · 최용준 (2008). 인터넷 포털뉴스 댓글의 여론형성 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8호, 311-358.
- 최영 (2002).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 저널리즘 가능성 연구: 일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6호, 33-63.
- 최영 · 김병철 (2000).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4-4호, 172-200.
- 최영목 (1997). 언론 분석-방송뉴스의 연성화, ‘필요악’인가 ‘편법’인가. 『저널리즘비평』, 22권, 75-77.
- 최환진 (2000).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본 인터넷 광고의 효과 과정. 『한국광고교육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제3회 미니컨퍼런스 주제발표.

- 한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 (2003.10.30; 2004.10.28; 2005.10.25). 『시사저널』.
- 한선 (2006). 블로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함의.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313-339.
- 한진만·설진아 (2001). 텔레비전 뉴스의 연성화에 관한 연구: KBS1, MBC, SBS의 주시청시간대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5-3호, 333-366.
- Baum, Matthew A. & Jamieson, Angela S. (2006). The *Oprah* effect: How soft news helps inattentive citizens vote consistently. *The Journal of Politics*, 68(4), 946-959.
- Blasi, V. (1977). The checking value in the First Amendment theory.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1977, 521-538.
- Blood, R. (2003). Weblogs and journalism: Do they connect?. *Nieman Reports*, 57(3), 61-62.
- Charnley, Mitchell V. (1948/2007). *News by Radio*. NY: Furnas Press.
- Gilmor, D. (2003). Moving toward participatory journalism. *Nieman Reports*, 57(3), 79-80.
- Lasica, J. D. (2003). Blogs and journalism need each other. *Nieman Reports*, 57(3), 70-72.
- Lowrey, W. (2006). Mapping the journalism-blogging relationship. *Journalism*, 7(4), 477-500.
- Matheson, D. (2004). Weblogs and the epistemology of the news: Some trends in online journalism. *New Media & Society*, 6(4), 443-468.
- McChesney, R. W. (2004). *The problem of the media*. NY: Monthly Review Press.
- Patterson, T. (2000). Doing well and doing good: how soft news and critical journalism are shrinking the news audience and weakening democracy-and what news outlets can do about it. The Joan Shorenstein Center on the Press, Politics & Public Policy at Harvard University.
- Paula M. P., Heider, Don., McCombs, Maxwell (2006). Watchdog or Good Neighbor?: The Public's Expectations of Local News.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11, no. 1, 77-88.

오마이뉴스 기자 블로그 홈페이지 <http://blueblog.ohmynews.com>

한겨레신문 기자 블로그 홈페이지 http://part.blog.hani.co.kr/blog/editor_main.html

(투고일자: 2010.11.19, 수정일자: 2011.1.14, 게재확정일자: 2011.1.20)

ABSTRACT

Journalistic Differences between Blogs of Professional Reporter and Citizen Reporter: Focused on Watchdog and Interactivity

Minha Kim* · Yunkyong Shin**

This study compares blogs of professional reporters with those of citizen reporters in terms of watchdog and interactivity functions. Watchdog function was analyzed in light of the extent of soft news and the degree of critical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Interactivity was assessed by analyzing readers' comments on the articles of reporter blogs. <Ohmynews> for citizen journalism and <Hankyoreh> for professional one were chosen in order to minimize any discrepancies caused by ideological differences. As a result of the content analyses, <Ohmynews> citizen reporter blogs were found to deliver soft news more frequently than those of <Hankyoreh>, whereas the former had stronger tendency to maintain the critical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than the latter. As for the interactivity function, although the number of comments uploaded to <Ohmynews> citizen reporter blogs was higher than that of <Hankyoreh> professional reporter blogs, the latter was found to meet the standards of communicative interaction more adequately than the former.

Keywords: Reporter's Blog, Online Journalism, Citizen Reporter, Watchdog, Interactiv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Ph.D Student,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